지역 소식통

세계유산 고창 방문의해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고창군이 11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조직위원회 회의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조직위원장(심덕섭 고창군수)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조직위원 약 15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 및 방문의 해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석원(前 전라북도의회의장)위원장은 "고창방문의 해 조직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누구보다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창군과 함께 방문의 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방문의 해 조직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산물가공 창업 기초반 교육생 20명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산물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 상품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공에 관한 전문 지식 함양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3년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을 위한 필수 선행 교육으로 교육 수료 시 '농산물가공 창업 심화반 교육'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농산물가공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으로 선착순 20명이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mint8726@korea.kr)로 접수, 2023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기초반) 교육생 모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대도약 꽃 피울 것"

권익현 부안군수, 민선8기 5대 비전 20대 목표 발표… 혁신·성장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 혁신과 성장을 통해 부안 대도약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4년 동안 다져온 굳건한 성장의 토대를 발판 삼아 새로운 혁신과 지속가능한 동력 확보로 미래 100년을 향한 부안 대도약을 이뤄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선8기 5대 비전 20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비전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궁항 마리나항만을 연계한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과 골프장·휴양콘도를 포함한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변산해수욕장 종합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부안을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과 푸드플랜 참여농가 확대를 통해 부안형 푸드플랜을 완성해 나가고 ICT 스마트팜과 수산물 특화상품을 집중 육성해 소득을 창출하는 농어업 도시로 만들겠다"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풍력핵심소재부품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 플랫폼을 확장, 풍력소재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탄소중립 수소자립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신항과 공항, 철도가 들어서면 새만금은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3권역 조기개발과 새만금과 부안을 잇는 실핏줄 도로를 연결해 새만금의 수혜가 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행정운영 원칙은 적극행정, 소통행정, 혁신행정"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9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미생물 신산업 육성의 중추"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9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그린 바이오 산업 중 미생물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센터의 내부 역량과 국내외 미생물 산업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센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정읍시와 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각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생물 센터의 역량 강화와 미생물 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28년까지의 센터의 비전과 전략,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용역 수행 기관은 △센터 현황 분석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지원사업 성과 분석 △R&D 사업 성과 분석 △국내외 미생물 동향 △전라북도 및 정읍시 미생물 정책 동향 △전라북도 및 정읍시 미생물 산업 동향 △센터 설립 및 운용 효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미생물 센터 관계자는 "농축산용 미생물 센터는 국내 미생물 신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전국 220여 개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효능검증과 안전성 평가, 대량 배양과 제형 공정, 산업화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설맞이 20%특별 할인판매 종료

106억원 판매… 할인예산 85억 확보 · 연중 10% 할인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지역화폐를 694억원 발행하고, 명절 20%및 연중 10% 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설맞이 20%특별 할인판매(1~5일)'결과, 106억4200만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총 2만1270명이 고창상품권을 구입했으며, 고창군민은 1만6804명(79%), 이외 지역주민은 4466명(21%)으로 집계됐다.

관외자는 관광객과 가족 거주 등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구입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유통을 통해 고창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트·식당·주유소·커피숍·숙박업·도소매상가 등 가맹점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재 가맹점은 2700개소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상품권 발행액은 1685억원이고, 판매액은 1613억원으로 발행액 대비 96% 판매실적을 올렸다. 4년간 총 환전액은 1474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91%에 이른다.

고창사랑상품권은 타 지역이 아닌 고창 내에서 유통되며, 고창의 자본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은 방문객에게 입장료(3000원)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관광객의 고창 상가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마을기업, '설레요' 할인 판매행사 열어

정읍시 마을기업은 10일에 정읍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설맞이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홍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을 돕고, 해당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마을기업 10개소(다모이야기, 다정인, 대흥리 마을공동체, 새미찬, 씩씩한 콩나물, 자연가, 콩사랑, 해아람, 정문 희망마을, 태산풍류)와 사회적기업 3개소(알콩달콩, 두손푸드, 유기농 비건)가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과 공예품 등 40여 종을 판매했다.

또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를 비롯해 달고나 게임 등 추억의 게임과 올 한해도 "대박 나고 부자 되세요"라고 행운을 빌어주는 행운의 돌림판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정읍시립농악단이 엿장수 공연을 겸한 마을기업 제품 홍보를 진행했으며, 사자춤과 버나돌리기 등 정읍농악의 흥과 화려함을 선보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고수면 주민과 대화 나눔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읍과 고수면을 찾아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군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고, 심 군수가 속 시원하게 답변에 나서면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군수는 11일 오전 동리국악당에서 '2023 군민행복 활력고창 나눔대화'를 열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14개 읍·면 순회 공감대화는 군정계획 보고, 활력 군민상 시상,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사업설명, 군정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나눔대화 소규모 사업성 건의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제시, 행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고, 심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파크골프장 신설 △동절기 제설 신속대응 △관광투어버스 운영 △문화·체육시설 총괄운영 방안 △마을 앞 인도개설 △노동저수지 둘레길 화장실 설치 △도시가스 설치 등이다.

심 군수는 정책 추진 절차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군민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